

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Channel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and program details (time, title, etc.).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3일(음 7월 18일 丙辰)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午, 未, 申, 酉, 戌, 亥).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비밀 결혼생활 외로움이 컸죠”

이지아, SBS '힐링캠프' 출연... 담담한 회상



“은 국민이 아는 분과 함께 숨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수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내도 많이 했고 포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은 산에서 내려온 다람쥐한테조차도 들려서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더이상 혼자일 수 없이 혼자였습니다. 정상적이지만 삶을 산 것은 그분이 그리웠을 때입니다. 무모할 만큼 순수하고 무지했습니다. 그게 사랑을 지키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지난 2011년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42)와의 비밀 결혼과 이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줬던 배우 이지아(35·사친)가 3년 만에 그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을 열었다.

이지아는 11일 밤 방송된 SBS TV '힐링캠프'에 출연해 서태지와 만남에서부터 비밀 결혼생활, 배우 정우성과의 열애 등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그러나 “여러 사람이 관계된 일이라 다는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해달라”는 말로 이야기 중간중간 말을 끊었고 직접적인 단어 대신 우회적인 표현을 쓰며 과거를 돌아봤다. 또 방송 내내 서태지를 ‘그분’이라 칭했다.

이지아는 “16세의 나이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위문공연에 온 그분을 우연히 만났고 얼마 후 큰 비밀(결혼)을 안게 됐다. 친구는 물론 가족에게도 얘기 못했죠”고 밝혔다.

그는 “부모님께 정말 큰 불효를 저질렀다.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됐기에 7년간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았다. 7년 후에야 부모님을 찾아보았다.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됐”고 “돌아온 저를 부모님은 그저 빈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셨다. 내 남동생은 누나가 외계인에게 납치된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앞서 서태지는 2011년 4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1993년 미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이지아)을 처음 만났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편지와 전화로 연락하며 호감을 갖게 됐고 1996년 은퇴 후 미국 생활을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지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아와 1997년 10월 미국에서 돌만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생활을 시작했으나 성격과 미래상이

달라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고 2006년 8월 부부 관계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공공 승계했던 둘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이지아가 2011년 1월19일 서태지에 대해 한국 법원에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지아는 한국에 돌아오기 전 미국에서 우연히 만난 한 국내 중견 여배우 덕에 연예계에 데뷔한 시연과 함께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도 개인사를 감춰왔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 희식 자리들을 모두 피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지아는 2007년 ‘태왕사신기’로 혜성같이 데뷔한 후 곧이어 ‘베트벤 바이러스’와 ‘스타일’에 주인공으로 전격 발탁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본명은 김상은이고 김지아로 개명했다. 이지아는 예명”이라며 “나이는 ‘세번 결혼한 여자’에 함께 출연했던 송창의 씨와 동일”이라고 말했다. 송창의는 1979년생이다.

이지아는 정우성과 파רי 여행 중인 사진이 찍히며 정우성과의 열애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곧이어 서태지와 관계가 드러났고 둘은 얼마 후 결별했다.

이지아는 “파리 여행에서 정우성 씨에게 고민 끝에 과거를 고백했는데, 자신도 15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다면서 그게 뭐 어떠냐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줬다”면서 “사실 그 일이 터지고도 그분과 잘 만나고 있었는데 결별설이 터지더라. 얼마 후 정말 헤어졌는데 그때는 다시 만나고 있다는 설이 나오더라”고 말했다.

그는 정우성에 대해 “너무 좋은 분이었고 견승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아는 “이제는 희식이 다 잠식하고 사람들과 많이 어울린다. 내가 술을 이렇게 잘 마시는 줄 몰랐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 내가 이 좋은 것을 그동안 못하고 살았다는 게 억울하다. 다시 과거를 돌아간다면 그때의 선택(서태지와 결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크릿 만의 섹시한 매력에 빠져 보세요”

8개월 만의 컴백, ‘시크릿 서머’ 발매

데 완전체로 모이니 라이브와 녹음이 수월해 여유가 생기더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싱글 음반에 이어 8개월 만의 컴백인 만큼 멤버들의 각오도 대단했다.

“20대 중반, 우리 나이에 맞는 섹시미를 보여주려고 고민했어요.”

전효성은 “이번 앨범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준비했다”며 “시크릿은 데뷔 초부터 목표가 국민 걸그룹이다. 1위 횟수도 중요하지만 1위하고 금방 잊히는 노래보다 많은 분에게 불리고 들리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기수는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4인조 걸그룹 시크릿(전효성 25, 한선화·송지은·정하나 24·사진)이 11일 강남구 역삼동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다섯 번째 미니앨범 ‘시크릿 서머’ 발매 기자회견회에서 신곡 콘셉트를 이렇게 소개했다.

그러나 1위 공약을 주문하자 멤버들의 파트와 의상을 바꿔 입고 노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는 걸그룹과 다른 자신들의 강점을 묻자 이렇게 외쳤다.

전효성은 “20대 초반의 사랑은 풋풋하고 순수한 느낌인데 20대 중반은 슬프고 아파도 인생을 다 걸 정도로 깊게 사랑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마돈나’ 등 이전 곡에선 파워풀한 안무와 인위적인 표정으로 섹시함을 표현했다면 지금은 섹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표정과 제스처에서 나이에 맞는 성숙미가 묻어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구두 신고 격한 퍼포먼스를 하는 몇 안 되는 그룹 중 하나라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린 파워풀한 댄스를 추면서 시원한 라이브를 소화하고 건강미가 있는 게 강점이지요.” /연합뉴스

실제 타이틀곡 ‘아이 인 러브’(I’m in love)의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은 안무와 표정, 의상으로 각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섹시미를 발산했다. 이 곡은 이단연타자가 작사·작곡한 곡으로 그루브(흥) 강한 댄스곡이다.



송지은은 “시크릿다운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브라스 사운드 특이한 노래”라며 “사랑을 수줍게 고백하는 여성이 아니라 사랑하며 느끼는 감정을 남자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여성을 표현했다”고 소개했다.



정하나도 “이전 앨범에선 귀엽고 여성스러운 모습이 가득했다면 이번에는 노래도 안무도 자극적이지 않고 우리 나이에 맞는 섹시미를 보여주기 위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앨범 발매를 위한 개별 활동을 한 한선화와 전효성은 연기와 솔로 앨범 활동이 내공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선화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더 섬세한 감정 연기를 할 수 있었고 가사도 흘러버리지 않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고, 전효성은 “솔로 활동 때는 3분의 무대를 혼자 채우는

광주MBC 탐사기획보도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광주MBC 탐사기획보도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취, 이대로 좋은가’가 제41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지역뉴스보도-TV 부문)을 수상한다.

국민 비밀 마음껏 열어보는 檢·警

광주MBC 김철원, 김민정, 송성근 기자가 지난해 9월 7차에 걸쳐 연속 보도한 이 기획보도는 경찰과 검찰이 업무 목적 외에 개인의 전자기록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유출하는 실태를 폭로했다.

자체 감사 결과를 밝히지 않아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을 통해 끝까지 추적, 권력기관의 이종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보도 이후 시민들에게 ‘정보 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방송의 날’인 9월3일 열린다.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